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예를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벽 전도특강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번 주 전도특강 ... 새벽기도회는 5시부터 다음 주부터는 비전2020운동 특별새벽기도회

비전2020운동본부에서는 성도들의 효과적인 전도활동을 돕기 위해 26일(월) - 31일(토) 새벽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도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의 전체 주제는 "땀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이며 강사는 허남기 목사(영은교회)이다.

전도특강에서는 첫날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전도의 동기를 살펴보고, 둘째 날인 27일(화)에는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전도를 위한 이웃만들기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28일(수)에는 전도의 접촉점의 유형과 접촉점의 발견, 접촉적 만들기 등을 다루게 된다. 29일(목)의 특강은 전도에서 개인간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30일(금)

에는 전도의 실제와 전도자의 자세를, 31일(토)에는 전도 후의 후속조치와 교회 성장을 위한 성도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에 시작한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비전2020운동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로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우리 작은 입술로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기도회는 11월2일(월)에 시작하여 11월 21일(토)에 마치게 된다. 이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열리게 된다.

비전 2020운동 21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24

시간 연속기도회실에는 밤낮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성도들은 노방전도, 토요일의 교구별 등반전도 등 전도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초 청잔치 등으로 잃은양 찾기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비전 2020 운동이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함으로써 2020년까지 전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75%인 3,7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전이 되면 이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4일(주일)에 시작한 '98 비전2020운동은 교회설립 제 7주년 기념일인 11월 22일 승전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50일간 전개된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30일(금)

1일(주일)

예선

교회설립 7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이달 30일(금)과 11월 1일(주일) 부서별 예선을 필두로 시작된다.

30일(금) 오후 7시부터 1·3·4층에서 치러질 예선은 장년부, 소망부, 각부 교사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3개조(믿음·소망·사랑)로 나뉘어 실시하게 된다.

1일(주일)에 있을 예선은 각 교회학교별로 치루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1명씩 선발하게 된다.

예선의 심사위원은 부서별로 선정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성경암송대회의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4:8에서 16장까지이다.

특별조로 편성된 유아부와 유치부 학생은

3개 장 중 1장만 암송하면 된다.

본선 및 결선은 11월 6일(금)에 치루게 되

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발표는 11월 8일 주일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다.

구분	일시	장소	선발인원
예선	장년, 교사 10월 30일(금) 오후 7시	1·3·4층 예배실	*장년은 3개조(추첨으로 편성)중 조별 2명씩
	교회학교 학생 11월 1일(주일) 각 부서 집회시간	교회학교 집회장소	*교회학교 학생은 각 부서별로 1명씩(총 6명)
본선	11월 6일(금) 오후 7시	1·2층 예배실	1조: 유년부, 초·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2조: 장년부, 소망부, 각부 교사 (각 조 2명씩 총 4명 결선 진출) 특별조: 유아, 유치부
결선	11월 6일(금) 오후 8시	1층 예배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



이중운 목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 있는 성 요한 교회당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의 집 돌을 옮겨다가 재건한 것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곤 했습니다.

어느날, 어느 순례자들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던 마틴 루터의 마음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 2:4, 롬 1:17)는 말씀이 크게 울려왔습니다. 루터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의 호소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뜨려 오늘까지의 개신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481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상고하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1.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마3:14-15).

루터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분노로 대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같은 오해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

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대속적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은 후 “하늘문이 열려 있어 내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에 우리는 본래 희망이 끊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에 관한 것이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히 믿음으로, 구약의 믿음으로부터 신약의 믿음까지, 유대인의 믿음으로부터 이방인의 믿음까지, 연약한 믿음부터 강한 믿음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믿음으로 믿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칭의(稱義)교리를 확립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의 호소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 방편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열린 손과 같습니다.

2.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소리는 바울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세상에서나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좋은 소식(Good News)’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계시하신 것이기

에 이르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리빙스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스가랴서 3장 2절을 통해 역사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듯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중세의 암흑을 밝히는 칭의(稱義)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대로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가늠대라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경계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변화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순례길에서

피곤을 잊은 바자, 그리고 의식의 복병

문형미(집사, 4교구)

살맛나는 장사꾼. 바로 지난 바자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었다. 1층에선 먹거리와 산지 직송 특산품들이 시끌장터를 재현했고 각 층마다 울린 열띤 호객 목소리도 아름답게만 들렸다.

2층 중고 의류점, 일명 날라리 패션의 점원이었던 한 권사님은 날라리 모자까지 눌러쓰시고 "어서 오시라요, 십만원짜리가 천원, 오백원! 고저 팔만 잘하면 거저도 줘요"라며 목청을 높였다.

어느 코너는 새 예배당 벽돌 한 장을 위해 뒤질새라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주님은 아시리라. 자기 코너에 손님이 없어도 앞 코너가 시끌벅적하면 그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주머니 돈이 썩지돈인 행복감을 느낀 3일이었다. 물먹은 솜 마냥 천근 만근인 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침이면 "육신이 너 바자회 끝나고 보자" 하며 교회를 향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골 4:13)"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은 큰 힘이 됐다.

그런데 바자가 지나자 교회에 갑자기 때아

닌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다. 이유인즉 4교구에서 청양 고추를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고추 폭지를 모두 폐노라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비롯, 코를 훌쩍이며 많은 교구 식구들이 수고를 하셨다. 그런데 고추 부대를 열 때마다 무작정 무임 상경한 모기떼들이 극성을 부렸던 것이다. 고추 4천근을 사서 3천근이나 팔았으니 그 속에서 나온 모기 수는 상상을 넘을 수 밖에. (헌데 남은 천근의 고추를 팔아야 할텐데 ... 흠 고추 장만을 안하신 성도님들께서 직접 사가시거나 주변에 선전도 많이 해 주셔서 성전건축에 동참해 주시면...)

덕분에 비전2020운동 연속기도회 중 철야기도가 모기와와 전쟁으로 돌변했다. 야행성인지라 기도시간을 철야로 작정했는데, 군데 군데 모기향을 피워 놔어도 모기들이 마귀처럼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 밖에 없었다. 모기 보기를 마귀 같이 하여 쫓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실까?

이제 바자의 열기를 넘어서는 더 강한 불꽃이 연속기도회에 활활 타올라 기도의 향연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질 기도드린다.

금주의 비전2020운동

▶전도회별 노방전도(25일 주일 II부 예배 후)
담당부서: 모세선교회, 한타전교회
요한선교회, 마리아전교회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

▶잃은 양 찾기 대상자 선정 및 명단 제출

▶전도특강(26일 - 31일)

시간: 오전5시 30분 - 6시 30분

장사: 허남기 목사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6시 - 오후 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25일(주일)	제1·2권사회
	26일(월)	베드로4, 루디아4
	27일(화)	바울4, 에스더4
	28일(수)	요한5, 마리아5
	29일(목)	베드로5, 루디아5
	30일(금)	스테반회, 대학부

▶금요심야기도회(30일)

주력부대: 5·6교구, 바울선교회, 제1·2권사회, 호산나찬양대

▶토요등반전도(31일 오후 3시)

6교구: 우면산(예술의 전당 후문 4주차장에서 집결)
9·10교구: 청계산(옛물 버스종점에서 집결)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8 비전202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전도자	태신자
조준택	조선희 조수자 홍성원
왕경희	박기양 박유선
최정숙	박용목 채영이 박광원 박혜원 박성원
무명	정달상
무명	서정자 서정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이영희(집사, 2교구)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울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으니
아~ 땀과 눈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으리라

아제 24시간 기도의 문은 열리고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는 걸음마다
간절함이 솟을 것이고
찬송이 사무쳐 눈물이 솟구치고

조용한 기도의 함성이
성도의 가슴을 돌아 메이리 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리이다

내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푸념하며 정죄하던 우리의 가슴에
오 주여
갈보리 십자가로,
겟세마네 피눈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던 그 인자하신 눈길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 애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던가
그 애타는 소망의 열기로
마음의 성전부터 우리 함께 건축하리라

온 세상이 다 비난하여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학교 교사 합동 철야기도회

30일(금) 오후 9시 ~ 31일(토) 새벽 3시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30일(금) 오후 9시부터 31일(토) 새벽 3시까지 열린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교회학교 교사의 영성을 고양시키고 비전2020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것이다.

기도회의 진행은 경건회(심야기도회)에 이어 부별 워크숍 및 기도회, 교사 소개 및 찬양, 공동체 훈련, 전체 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

행될 예정이다.

부별 모임은 유아부 201호, 유치부 301호, 유년부 유년부교사실, 초등부 2층 교사실, 중등부 402호, 고등부 403호, 대학부 404호, 청년부 302호, 장년부 1층 예배실, 소망부 302호, 사랑부 별관에서 각각 갖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교사들 간의 친교를 위해 기도회 진행 중 반드시 현재 부서에서 사용 중인 명찰을 달아줄 것도 당부했다.

제 2차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올린 지 481년이 된다. 당시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필설로 형언키 어려울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생긴 수다한 이념과 비리는 교회를 질식시키거나 교회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재발견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과 사도 정신을 재발견하여 뜨거운 회개와 십자가 고난이 강조되는 교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을 정립하여 화해와 일치 협력의 본을 보이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2020운동 기도제목

1. 가족과 이웃 전도로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소서
2. 군선교, 교도소선교,
학원선교, 장애인선교에
불이 붙게 하소서
3.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환영회

* 초청된 새가족 *

김정인 안영숙 홍미란 신선자 김종옥
김원희 문은숙 이혁주 양귀옥 음득근
조효순 강낙성 이시운 김민정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교회학교 소식 ◆

- ◇ 중등부에서는 지난 주일(10월18일) 예배 후 작은 나눔의 장을 열었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중등부 학생들에게 적당한 물건을 정성껏 준비해 와 풍성한 사랑의 행사가 되었다. 중등부에서는 이날 행사에서 얻은 것 전부를 교회건축헌금으로 드렸다.

—<문동진 기자>

- ◇ 이종운 목사는 29일(목) 경북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설교한다.
- ◇ 김선이 집사(2교구)는 22일(목) 방배동에 '시애틀용실'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관모 집사(1교구)는 24일(토) 논현동에 '학동한정식'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김용호 성도(대학부, 4교구 김인수·이영희 집사 아들)은 25일 육군에 입대한다.
- ◇ 김선미 권사(11교구)는 안면신경 수술을 앞두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 ◇ 오늘 점심식사는 이관규·이순영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10월 26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김세열 총장)
- 11월 2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나석호 변호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 설교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 라디오 강단 |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 | 새벽의 강단 |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위해
3.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